



성령, 복음, 그리고 유대 전통의 활용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8년 6월 24일

이스라엘의 공동체 지도자들 가운데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가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유대 전통 및 랍비들의 가르침의 역할입니다.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인도되어야 하며 2)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담대해야 하고 3) 유대 전통을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저희의 입장을 입증하며 여러분에게는 격려가 될만한 하나의 긍정적인 간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세 사람이 예루살렘의 저희 공동체를 찾아왔습니다. 모두 이스라엘 토박이로, 정통파의 배경을 갖고 있었죠. 한 사람은 이미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처음 주님을 접한 것은 수칼 할렐이었지만, 아직 공동체에 속하진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S와 M이 데려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저와의 개인적 만남을 몇 번 가진 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건물에 들어오기를 꺼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들어왔을 때, 그들은 사랑과 수용으로 자신들을 대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찬양을 시작했을 때,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곧 성령의 만지심을 받았습니다. 토라 두루마리도 읽고,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 어찌 예수아께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17장을 통해 우리가 당신과, 또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전했습니다.

저희에게 큰 기쁨이 된 것은, 구원을 모르던 두 정통파 출신의 형제들이 말씀을 들은 후에 앞으로 나아와 공개적으로 예수아를 주요 구원자로 영접하겠다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들과 함께 기뻐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케 했을까요? 그것은 전통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우리가 셋 중 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려 했을 때, 그가 바닥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가 없었고, 평생 그런 광경을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는 그저 성령님의 임재를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저희의 예배 가운데 전통적인 요소들이 있었기에 이 형제들이 편안하게 마음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배 가운데 히브리어만을 사용하고, 성도 중 많은 이들이 랍비들의 가르침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적 가정에서 자란 키부츠 일원 탈 Tal 이 그들에게 메시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데에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유대 전통이 아닙니다. 예수아지요. 하지만 유대 전통의 요소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본질과 환경을 헛갈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누군가의 구원을 진실로 원한다면, 저는 제 자신을 바꿔 그의 문화와 세계관에 맞춰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한편, 문화적 배경이 메시지 자체를 가려버리고 만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올바른 균형을 갖게 될까요? 사랑과 복음, 성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를 이해하고 그와 소통하고 싶어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가능한 모든 장애물을 제해버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상황이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의 표현에 있어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겐 균형에 대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고전 9:20-21: 유대 사람들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유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일부 랍비들의 가르침에 드러나는 교만과 율법주의, 예수아를 거부하는 것과 메시아니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것,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에는 분명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 23). 그러나, 예수아께서는 또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막 8:15). 이는 세속적 사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위선이 있는 것과 똑같이, 기독교 사역자들 가운데에도 위선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계에 위협이 있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세속 사회에도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행 1:6)?”라고 물은 제자들의 마음에 부르짖음이 있었음을 아십니까? 그들이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취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아시겠나요? 저희는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뤄질까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행 1:8).”

예수아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답입니다. 정치, 종교, 군사, 경제는 저희 민족에게 성경적 회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선 순위를 성령의 능력에

두고, 그 다음으로 예슈아의 복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온전히 이스라엘에게, 또한 열방에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민족을 향한 저희의 부르짖음은 예슈아의 제자들의 것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에게 주시는 답도 그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 가운데 저희를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번역: 고병현

Shaul Byunghyun Go